

순창군 스포츠도시 1번지 우뚝

내년 34개 대회 유치 확정 발빠른 마케팅 성과 이뤄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차

순창군이 발빠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국제대회를 포함해 내년에 34개 스포츠 대회 유치를 확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이 내년도에 유치를 확정된 대회는 국제대회로는 4월 1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ITF 국제주니어테니스 선수권대회와 8월에 5일간 진행되는 KEF 국제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가 있다. 국제테니스연맹과 대한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로 12개국 이상에서 대규모 선수단이 참여할 계획이다.

전국대회는 '2018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제39회 회계회 전국정구대회' 등 24개 대회가 순창에서 열린 열전을 펼치게 된다. 총 126일간 순창에서 경기가 진행되면서 방문단이 지역에서 머물며 소비하게 된다.

특히 2월에 진행되는 '2018 전국유소년야구대회'는 1,500여명의 선수단과 가족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으로 벌써 숙박예약이 쇄도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정구종목이 순창에서 개최되는



순창군이 발빠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국제대회를 포함해 내년에 34개 스포츠 대회 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회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정구선수들이 순창에 몰려 순창 골목상권에 큰 특수가 기대되고 있다. 도단위 대회는 제30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등 8개 대회를 개최해 17일간 열릴 예정이다.

군은 전자훈련단 유치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전자훈련은 새해 1월 2일부터 전라북도대학교 테니스팀 15팀을 시작으로 문을 연다. 군은 올해는 130개팀 전자훈련단 유치를 목표로 종목별 협회 관계자와 접촉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스포츠 마케팅은 대

규모 선수단과 가족 등 관계자들이 경기기간 동안 지역에서 머물며 소비를 이어 간다는 데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이미 확정된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올해 총 44개 대회를 유치해 8만 3천명이 순창을 방문하고 120여억원의 직간접적 경제과급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힌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양념식품산업 육성 팔 걷었다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활성화 방안 마련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열려

임실군이 농가 소득증출의 핵심사업인 임실N양념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적 모델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실군은 양념마을사업단과 품목생산농가 등의 정보 공유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양념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임실엔양념마을사업단 워크숍'을 가졌다.

군은 지난 21일과 22일 전남 해남군 일원에서 임실N양념사업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갖고,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비롯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강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해남군 소재 성진영농조합 등을 방문해 절임배추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견학하고 노하우를 익히는 등 벤치마킹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임실엔양념마을사업단 및 품목생산농가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생산자조직화 교육도 올해 세 번째로 진행했다.

임실군이 역점 추진 중인 '임실엔양념식품산업육성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향토 자원인 고추를 기반으로 텃밭 농산물인 양념채소와 융복합하는 사업이다.

민선6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15년 전라북도 향토산업육성 공모사업으로 선정, 2018년까지 4년간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단 운영과 역량강화,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양념가공공장 등을 추진 중이다.

더욱이 올해에는 양념가공공장이 준공되면서 2018년부터 김치분말양념과 만능양념 등 양념제품의 생산·판매와 '임실 아사아사 김장 페스티벌'을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세계적 농산물을 이용한 김치담그기 체험 등 가공공장 및 체험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생산농가 이모씨는 "군에서 추진 중인 양념식품산업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주체 관계



임실엔양념마을사업단 워크숍을 가졌다. 임실군은 양념마을사업단과 품목생산농가 등의 정보 공유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양념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임실엔양념마을사업단 워크숍'을 가졌다.

를 단독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상호 소통하는 지리가 자주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소득 증출을 위해 양념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양념마을사업단 추진을 지원하고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이 2017년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 분야에서 '안전권설립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복 터진 임실군 경사났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 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올해 30여개가 넘는 수상기록을 세운 임실군이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또 상을 받으면서 '상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17년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 분야에서 '안전권설립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실군의 올해 수상실적은 청소년 안전관리 분야를 포함해 34개로 늘어났다. 이번 평가에서 임실군은 재난재해 대책과 소방훈련을 비롯해 종사자교육 및 매뉴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지난 해에도 임실군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을 평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등

급'을 받는 등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임실군이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은 해마다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실시, 명실상부한 호남 최고의 청소년수련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소년 분야 수상까지 이끌어낸 임실군은 올해 '2017 고객감동 브랜드 지수' 농촌도시 브랜드 부문에서 1위, 균형발전사업 2관왕, 임실N치즈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전라북도 1시간 1대포관광지 육성사업 A등급, 임실 치즈마을 팽복마을콘서트 대동령상 등 분야별로 각종 상을 휩쓰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난 22일 2017년 제4차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오래된 미래로 구현하는 관광 진흥 방안'을 검토하고 남원시 관광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25일 밝혔다.

남원시 제4기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박상선)의 위원들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남원시 관광정책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오래된 미래로 구현하는 관광 진흥 방안은 '팍 찬 1박 1일 남원관광'을 모토로 ▲한국 속의 한국이 살아있는 전통문화 관광도시 ▲감성 충전소로 사랑받는 청정자연 관광도시 ▲역사 박물관으로 뛰어난 현장 학습 관광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주관한 2017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남원예촌'을 중심으로 관광투윈 중심의 전통문화 zone 활성화 실현방안으로 논의되었다.

한편, 이환주 남원시장은 "민선 6기 내내 최우선 과제로 남원시의 문화관광정책을 펼쳐 왔으며, '남원예촌'을 비롯해 지리산 친환경 정기열차 사업 추진 등 전국 최초의 문화도시 남원을 이끌어 왔고, 오래된 미래이자 매력적인 관광도시를 이루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경찰서 보안협력위 정기회의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가 최근 경찰서에서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서한복)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이주여성 정착 지원을 위한 보안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17년 한 해 동안 보안협력위원회 주요 사업 활동사항 및 성과를 공유하고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이주여성 정착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2018년부터 보안협력위원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위원장에 유재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출범을 다짐했다.

순창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이주여성을 위한 설, 추석 명절 초청 위문품 전달, 김장 담그기 체험행사, 이주여성 가족 모국방문 지원 행사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서한복 위원장은 "한 해 동안 활동사항을 회상하면서 보람도 느끼지만 더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든다며 내년에는 새로운 위원장을 도와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이주여성이 순창 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뒷남재 구 도로, 춘향길로 부활하다

5km 구간엔 소공원 등 조성 테마관광자원 자리매김 기대

남원의 뒷남재로 불리워지는 전주~남원 구도로 5km 구간이 춘향길로 다시 태어났다.

남원시는 서남대 정문에서 국도 17호선 합류지점까지의 구 도로에 연결되는 구간엔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을 비롯한 10점의 춘향 기록화 그림판과 판소리 춘향전의 가사 그리고 춘향전 주인공들을 묘사한 인형 소공원을 꾸민 춘향길을 조성, 개통하였다고 밝혔다.

서남대 입구에서 현 국도 17호선이 만나는 지점까지의 구 도로 구간은 300여주 이상의 배롱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도토리 나무와 소나무들이 잘 어울어진 아름답기 숲이 보존되고 있어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산책길로 사랑

받아오던 곳으로써 금번 남원시가 곳곳에 구절초 등 야생화를 보강식재하여 춘향길로 조성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시 관광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 산책로로 활용되면서 관광객들이 서남대앞에서 하차하여 약 1시간을 걸어도 이도령 고개를 지나 오리정에서 승차하는 코스로서 걷는 여행추세의 확산에 따라 테마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체계적이고 쾌적한 길 관리를 위해 산림과와 관할 동사무소 그리고 사회단체의 협조로 정결활동을 지속해 나가므로써, 4계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심신치유 기능을 가진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나갈 것이며, 2018년 초 향교동 주민 춘향길 걷기 및 자연정화활동을 필두로 적극적인 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년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